



## 주요 소식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매일 스포츠 Day”
- 행복청, 우수대학 유치활동 전개
- 행복청,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앞장
-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정부세종청사체육관 “매일 스포츠 Day!”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별·시간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눈길’  
올해부터 임신부 산전·후 마사지프로그램, 예술영재클래스 등 도입 ‘기대’



실버세대 라인댄스, 퇴근길 복직이는  
키즈카페와 ‘망중한’을 스포츠로 즐기는 부모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이 만들어낸 가족의 풍경

지난 2021년 8월 정식 개관한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만 3년도 채 되기 전 월 회원 수 5천 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리에 운영 중입니다.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체육관을  
이용 중이라는 한 시민은 “청사체육관은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 이미 행복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지역명소 중 하나”라면서, “특히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이 자주 열려 가족친화적인 도시  
가치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문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영, 아쿠아로빅, 풋살, 배드민턴, 탁구, 농구, 스피닝,  
헬스 등 체육관 본연의 시설과 기능을 갖추는 한편, 모든  
세대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연령대별·시간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포츠강좌 등을 마련한 공이  
 컸습니다. 여기에 각종 예술전시와 공연, 바자회 등 가족  
단위의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인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은 최근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행복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출산율과 영유아인구비율 또한 국내 최고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맞벌이를 하는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이곳 체육관 라인댄스는 연고가  
거의 없는 신도시에서 ‘황혼육아’를 하느라 지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과 건강을 챙기는 데 ‘효자’란 평을  
받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어르신  
들이 이용하기 수월한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점도 호응을 이끌  
어낸 비결입니다.

여기에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새벽반,  
점심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유아  
놀이방(키즈카페)이 운영되는 저녁시간대가 인기입니다. 퇴근길  
잠시나마 아이를 맡기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달콤한 여유 덕분  
입니다.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발맞춰, 임신부를 위한  
산전·후 마사지와 요가, 체조 등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포츠 국가대표, K-아이돌과 K-디지털 크리에이터 꿈을 키우는 영재교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 운영 중인 ‘국가대표 유소년 스포츠교실’의 경우, 각종 대회에서 많은 입상실적을 올리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위너스 코리아 챌린지컵 리듬체조대회’에서 수강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한 천송이 선수의 리듬체조교실, 김병철·김승현 선수의 농구교실, 광경근·장대일 선수의 축구교실, 이정현 선수의 인라인스케이팅교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의 재능기부와 체육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유치부부터 유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국가대표의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직 행복도시에 체육전문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양질의 스포츠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추후 펜싱, 양궁 등 분야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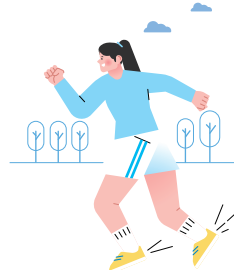
한편, 행복청은 올해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K-pop 아이돌과 K-디지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서울 예술공연고등학교(서공예)의 주말 클래스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영역은 물론, 미래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디어와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집중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 가족 동반 스포츠·문화프로그램 확충으로 건강한 공동체에 한 걸음 더

행복청과 체육관은 앞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골프 등 가족 동반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충함과 동시에, 3대가 참여하는 전시회·나눔 바자회와 같은 가족 중심의 문화 활동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가족의 가치는 개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체육관이 가족친화적 시설에서 남녀노소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공동체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두가 활발히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마당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관 운영방향에 시민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을 시작으로 더욱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행복도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핵심도시가 될 것

9월 개교하는 ‘공동캠퍼스’ 교육·연구·취업 순환체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할땐 ‘한국판 내셔널몰’ 만들것  
“사람·일자리 모이는 도시 그게 바로 진정한 행정수도”

“실질적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점 삼아 충청권 전역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탄생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비수도권 ‘메가시티’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행복도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행복도시는 국내 유일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중에서도 정부청사 건물들이 밀집한 73㎢ 구역으로 올해 2월 기준 상주인구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자족형 복합도시입니다. 이곳에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붙어 있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각자 플레이로는 메가시티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행복청 주도로 2019년 봄 4개 시·도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과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부터 광역 거버넌스 운영과 충청권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켰고 현재 ‘광역의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행복도시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위상과 국토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의 핵심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마친 뒤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행복청장으로 공직에 복귀하였습니다. 수자원과 도로, 건설 정책 분야에서 뼈가 굵은 그는 행복도시라는 도시 설계와 구성에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까지 1단계 구성을 마친 행복도시는 2020년까지 2단계 성숙 과정을 거쳐 마지막 3단계 완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시 완성 목표 시기는 오는 2030년. 남은 6년의 성패가 그의 어깨에 달린 셈입니다.

김형렬 청장은 “1단계에선 중앙 행정기관 이전과 광역도로망 건설, 2단계에서는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과 우수 기업 유치에 이뤄졌습니다”라며 “이젠 그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할 3단계 시기가 진행 중인 만큼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단계 당시 추진하기로 한 7개 대학 공동캠퍼스는 현재 행복청이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모여 강의실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입니다.

김형렬 청장은 “공동캠퍼스가 오는 9월 개교하면 3000명 이상의 청년층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며 “기존에 유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 400여 개 첨단 기업·연구소와 함께 교육·연구·창업·취업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간 건설비 급등 문제로 캠퍼스 공사가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 18일 재개되며 오는 9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그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현재 행복도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행정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이 지난해 10월 국회 규칙 제정으로 결정된 만큼 이를 완수하는 것도 행복청의 또 다른 임무가 됐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몰을 보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박물관, 기념관, 공원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라며 “행복도시에도 국가적 문화예술 시설과 상징적 공원 등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판 내셔널몰’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형렬 행복청장,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광폭 행보'

연세대 총장 면담 등  
기관장이 직접 발 벗고 유치 활동 전개

김형렬 행복청장은 3월 8일(금) 운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면담하고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의 특징과 입주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학 유치활동에 나섰습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활성화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유치 중으로, 행정의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특성에 맞게 행정 및 국제정책, BT 및 AI/ICT 분야 대학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학령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방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행복청은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및 국가정책, BT 및 AI, ICT 등 유치분야 특화를 통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형렬 청장은 "행복도시가 가진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국가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행복청,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명소 탐방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요소를 발굴하여  
행복도시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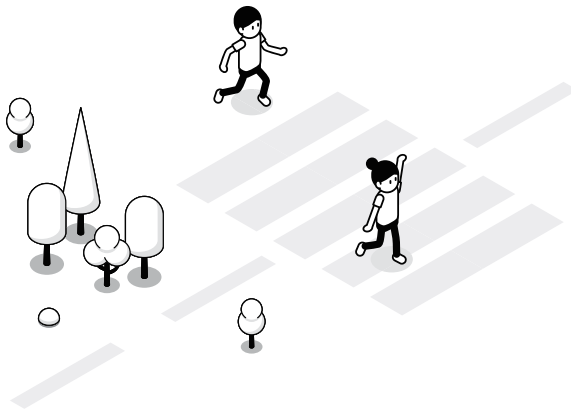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국내 주요 명소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탐방지로는 다양한 매력을 지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로 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내·외부 건축 디자인과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여의도 '더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뉴트로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성수동' 상권 길을 따라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의선 숲길',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자연속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숲'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국내 도시개발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요소를 도시 건설과정에 반영해 행복도시를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했는데 직원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도시건설 과정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청,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 앞장

교육청,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6-3생 산울동 입주지역 주민·유치원생 대상  
교통안전 정책 홍보

행복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월 13일(수)에 2024년 3월 개원한 6-3생 산울동 바른유치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산울동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운전자 대상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어린이와 운전자가 교통안전수칙을 생활 습관처럼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라면서 “행복도시가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2014년부터 세종시, 교육청, 경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교통정온화기법\* 중 하나인 회전교차로를 확대·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교통정온화 기법 : 지그재그 차로, 차로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요철 등

## 행복청,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앞장

안전·품질 보증 공공시설협의체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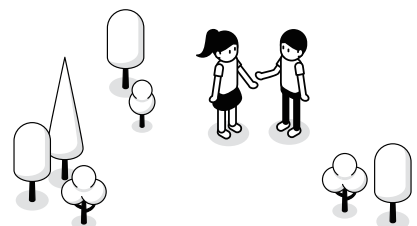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통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품질 보증 공공시설 협의체 회의」를 3월 20일(수)에 개최하였습니다.

협의체 회의는 행복청, 공사관계자(감리단·시공사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며,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예방방안, 우수 시공사례 공유 및 신기술·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4-2생)·함강동(5-1생)·산울동(6-3생)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생교육원 공사 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안전·품질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로부터 작업자의 추락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 가시시설물(비계, 동바리 등) 설치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현장별 안전사고 예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선제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력 추진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방문

행복청은 2023년 12월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2024년 1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착공 등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의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과 담당자들이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월 21일(목)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경복궁에 입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으로 이전 위치를 정하고 금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며 오는 2030년까지 건립사업을 추진합니다. 행복청 방문단 일행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의 집적화된 국립박물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부지매각, 건축자문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이어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글을 활용한 전시를 둘러보고, 지난 1월 취임한 김일환 관장과 박물관단지 2구역에 한글을 콘텐츠로 하는 한글교육기관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한글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 방문단은 세종시는 출범단계부터 ‘세종’을 도시명칭으로 정하는 등 도심 곳곳에 한글이 지닌 디자인적 가치와 우수성을 접목하기 위해 교량의 형태, 건축물의 외관, 건물명칭, 동·마을명칭, 도로명칭 등 한글의 가치에 주목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복청은 세계적 문화아이콘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글을 주제로 국립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한글 엑스포’ 개최를 제안하는 등 세종시가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협력을 모색하였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립박물관단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 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의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청, 과학문화센터 건립 설계공모

세종시 최초의 공립 과학교육시설 건립

행복청은 3월 22일 행복도시 함강동(5-1생활권)에 건립 되는 과학문화센터의 설계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설계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배치계획, 공간계획, 입면 계획 등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합니다. 당선작은 “과학 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설계공모와 관련된 소식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5월 30일(월)까지 응모를 마쳐야 합니다.

공모안 접수는 4월 1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고 6월 11일(화) 공모안을 심사하여 6월 12일(수)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행복도시의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건축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문화센터는 학생,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시설로 부지면적 9,444㎡, 연면적 1만2000㎡ 규모로 주요시설은 기초과학실, 과학탐구실, 과학전시실, 천체투영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 회전교차로,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두 마리 토끼’ 한번에



회전교차로 최다 설치 ‘행복도시’,  
교통안전도 전국 최고  
회전교차로 효율 높이려면  
운전자 ‘올바른 통행방법’ 숙지가 관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2000개소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0년 본격 도입 이래, 신도시 등 계획도로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인구 대비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 주도 계획도시인 행복도시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약 2만 6000명당 1개꼴인 회전교차로가 행복도시에서는 대략 3100명당 1개 수준입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에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는 총 94개소로, 여기에 앞으로 5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회전교차로가 늘어나는 이유? 첫째는 ‘안전성’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로 꼽히며 일찍이 여러 선진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형 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시설 특성상, 진입할 때부터 고원식횡단보도 등을 통해 30km 이하 저속운행을 유도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낮아 사망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만큼 보행자 안전에도 유리합니다.

실제 행복도시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81.3건, 사망자 수는 5.3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는 사고 239.6건, 사망 4.4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행복도시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명,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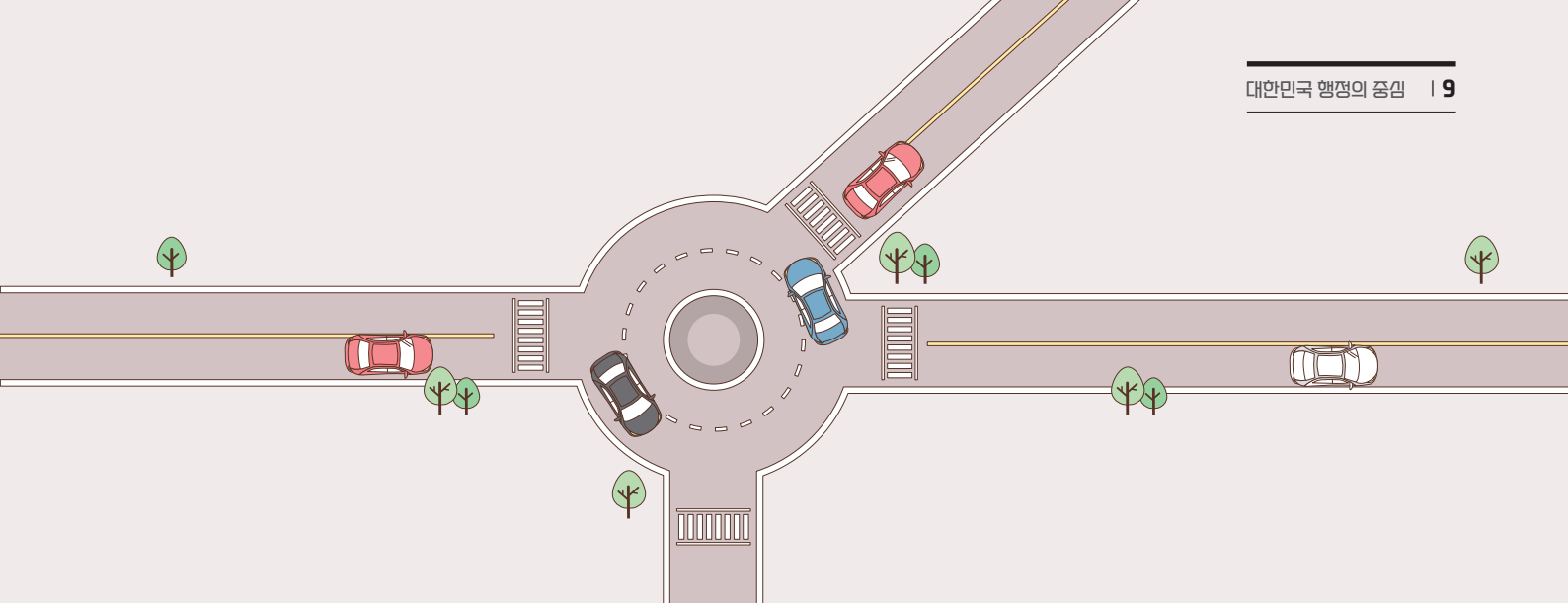
###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교통 혼잡 방지+탄소저감 효과까지 ‘일석이조’

회전교차로는 또, 신호대기를 위한 정지가 없어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향별로 진행 신호가 들어오는 평면교차로의 경우 평균 2분을 대기해야 하는 데다 교통량이 포화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 지체되기 쉽지만, 회전교차로는 차량 정지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연속적으로 통행할 수 있어 더욱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 시대 탄소저감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평면교차로에 비해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로 인한 공회전이 적어 차량 배기가스 배출이 적고, 교통흐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연료 소비에 있어서도 효율적입니다.







## 회전교차로 통행 시 기억할 것 “회전차량 우선”과 “양보의 미덕”

그렇다면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무엇일까요? 주행 차선과 진입 타이밍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회전교차로의 기본 주행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차량보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간의 상호 신호가 중요합니다. 진입할 때는 좌측이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과의 타이밍을 조율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회전교차로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인 점도 포인트입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2번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요컨대 회전교차로의 통행수칙은 ‘양보의 미덕’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행복도시,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중

그동안 행복청은 회전교차로, 도로폭 줄임, 지그재그차선, 고원식 횡단보도 등 다양한 교통정문화 기법을 도시설계부터 반영하여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감축시킴으로써 보행자, 교통약자 등의 안전 확보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행복청은 운전자들이 통행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등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비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5년 연속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회전교차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통행방법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청에서는 포스터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은 물론,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회전교차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올바른 통행방법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구축을 통해 행복도시가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 선도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 “라떼 파파”가 행복한 도시의 봄을 기다리며

스웨덴에서는 길거리 어디에서나 “한 손에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있는 아빠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라떼파파(Latte Papa)”로 불리는 이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였던 스웨덴에서 “라떼파파(Latte Papa)”로 대변되는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197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부모 공동육아 휴직제도”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의 문화·여가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라떼파파(Latte Papa)”들은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도시의 공원과 길거리를 산책하고 도서관 및 박물관과 놀이터, 상점가에서 여가를 즐기는 등 일상의 도심 속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속에서 현재 스웨덴의 출산율은 유럽에서도 상위권인 1.6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과 경제적인 부분 등이 출산율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라떼파파(Latte Papa)” 사례처럼 아이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통계청의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2명인 도시가 있다. 바로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행복도시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국제공모를 통해 세계 최초로 도시의 중심부를 문화·녹지공간으로 구성하고 주변에 6개 생활권을 배치한 환상형(環狀形)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전체면적의 52.6%에 달하는 약 37.8km<sup>2</sup>를 공원과 녹지, 친수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엄정희차장



혁신적 도시계획을 토대로 실제 도시의 중심부에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등 대규모 공원·보행시설과 “국립세종도서관 및 대통령기록관, 세종예술의전당, 어반아트리움” 등 문화·상업시설을 조성하였고, 주거지 인근 곳곳에도 190여 개의 소규모 근린·수변공원들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중심의 특화된 공간도 적극 조성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국가가 독립된 시설로 직접 건립한 어린이 전용 문화·교육 시설인 “국립박물관단지의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작년 말 개관하였으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와 유아 숲체험원, 어린이근린공원” 등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권마다 공동육아시설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공도서관, 국립어린이집” 등이 도보권에 있고, 넓은 보행로와 더불어 도로 주요 교차점에는 “회전교차로”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하여 유모차와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행복도시에서는 유모차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아이들을 통학시키거나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라떼파파(Latte Papa)”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꽃 피는 계절이 되면 겨우내 움츠렸던 아이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다시 자연과 문화를 누리고 뛰어놀며 웃음꽃도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즐거운 도시, 이름 그대로 누구나 살기 좋고 행복한 “행복도시의 봄”을 기다려 봅시다.





알쏭  
달쏭우리말  
바르게 쓰기

## 행복이와 한글교시(3교시)

- '누부룩하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늘어진 모양이 차분하다 (O)    - 매우 보드랍고 연하다 (X)
- '쳐진'과 '쳐진'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시무룩하게 쳐진 눈썹 (O)    - 시무룩하게 쳐진 눈썹 (X)



## 알듯말듯 우리 숙담 알아보기

- ① 등을 쓰다듬어 준 강아지 [?] [?] 문다
- ② 나그네 보고 [?] [?] 한다



사자성어 배워가기

낭	중	지	추
(囊)	(中)	(之)	(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2016년 11월 설립된 행복도시에 유일한 문화예술행정기관으로  
행복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인 1,071석의 대극장과 첨단 사양의 무대, 음향, 조명시설을 갖춘 시 유일의 전문 공연장입니다.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공연시설로 행복도시의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여기는 어디일까요?



초성인트

ㅅ ㅈ ㅅ ㅅ ㅈ 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VC

대한민국관광위원회

Korea Tourism Committee

RIDE THE KOREAN WAVE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VISIT KOREA YEAR**  
2023-2024

Honorary Ambassador of  
VISIT KOREA YEAR 2023-2024  
**CHA EUN-WOO**

보건복지부

2024. 2. 23 제작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될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http://www.e-gen.or.kr))·복지부  
시도 보건소·건강공단·심평원 홈페이지

복지부 | 129

건강공단 | 1577-1000

심평원 | 1644-2000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129-연결 후 8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일시: 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선거일 투표**

**일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유효표·무효표 예시**

공직선거법 제 179조 (무효투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의2 (무효투표)

**유효표**

**무효표**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종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 문의

**1인 2표:**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1표  
※ 재·보궐선거 등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산림청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행복청 SNS 채널**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p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0-3094

www.naacc.go.kr

디자인·제작\_(주)다원기획

T. 044-865-8115